



# “무주상 교육이 행복의 지름길”



## 한국교원대 박배훈 前 총장

### -우선 불교와 인연 맺으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 순천 송광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광종형 교수가 불일회 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뵈었는데 두어 시간 동안 잠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들려 주셨어요. 주로 '유식'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나에게는 뭔가 와 닿았거든요. 그 다음해엔 가 해인사 원당암에서 해암 스님(조계종 前 종정)도 보았는데 인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역시 저 가슴에 큰 가르침으로 각인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불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불자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년에는 큰스님들을 여러분 찾아뵈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지

는데 아내가 108배를 하라고 권유했고 나는 힘이 있는 동안은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로부터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 -어머님에 대한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누군들 부모님께 잘 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생전에 늘 "사람살기 8모다"라고 하셨어요. 8모는 8방(方) 다시말해 여덟 가지의 방향을 말하는 데 사람이 사는 것에는 절대적인 한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바로 집착하지 않는 삶을 강조하신 겁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대단히 크게 여기며 살고 있어요.

### -오늘날 사회적으로 교사들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식층이 교사들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지식수준이 높아졌고 그로인해 교사들을 보는 시각이 대등해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교원대학의 설립 취지도 바로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결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트 교육자 양성도 교육학의 질적 향상 등을 함

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자연도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더하고 빼도 타자(他者)가 그대로일 수 있도록 자기를 '0'의 존재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또 '0'은 어떤 수에 곱하든 그 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나를 타자에게 완전하게 동화시키려는 겁니다. 남을 무한히 포용하고 관용하는 자세 말입니다. 나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는 수가 적을수록 몫은 커지잖아요? 성립되는 등식은 아니지만 '0'으로 나누면 그 몫은 본래의 수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0'과 같은 존재로 타인과 자연과 사회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0'의 삶은 불교의 보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교와 수학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불교는 고타(苦)의 해결을 말하고 수학은 '문제'의 해결을 말합니다. 불교에서의 고타 하나의 증상이라면 그것은 집(執)에서 비롯되지요. 그리고 고타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의 멸(滅)이 제시되고 멸을 이룬 상황을 도(道)라 합니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지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苦) 그 문제를 이해하려 애쓰며(執) 해결 방안을 모색(索)하지요. 문제가 해결되면 검증하고 응용을 합니다(道). 12연기도 결국은 인(因)과 연(緣)의 문제인데 수학과 관계의 규명 작업이거든요. 다만, 수학은 규칙적인 관계에 대한 규명을 다루고 불교에서는 불규칙적인 관계는 물론 관계 자체로부터의 해탈을 궁극으로 삼는 큰 차이가 있기도 하지요.

### -교육자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앞서 교육의 근본적인 방법과 목적을 '무주상 교육'이란 말로 설명했습니다만, 그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듯 교육도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돈 권력 명예 같은 있음의 세계에서 추구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그 고요함과 적정(寂靜)을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에는 어떤 근심도 계산도 없이 그저 평안하고 고요할 뿐입니다. 결국 무주상의 경지에서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거기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건강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목표들을 성취해 나가는 정진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모든 소원과 목표들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과 절망을 이기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무주상 교육'을 이뤄 나가는 길이고, 온 국민 나아가 전세계 인류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글·사진=임연태 부국장 mian1@hanmail.net

## 교육의 궁극 목적은 '보이지 않는 진리' 가르치는 것 타인에 동화되고 소통하는 '0' 같은 삶의 자세 필요

관 스님을 찾아뵈고 격려를 받았고 종정이신 법전 스님에게는 여러 서적과 법명 그리고 화두까지 받았어요. 영명(永明)이란 이름을 주시며 그 뜻을 두고두고 새기라 하였고 '무(無)'자 화두를 주시며 이제 참선에 매진하라고 하셨습니다.

### -개인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수행이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16년째 매일아침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업집인'으로 시작해서 108배를 송하 며 절을 하고 <전수경> <반야심경> 독송 불보살님의 명호와 광명진언 등 각종 진언 암송 등으로 이어지는 아침예불이 수행이라면 수행입니다. 나는 살면서 세 가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는 '하늘과의 약속'인데 어릴 때 어른들이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신다고 걱정하실 때 나는 하늘을 우러러 "우리 엄마가 이번에 일어 서시면 75세까지 사실 수 있도록 잘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한 약속이 지켜져 어머니는 77세에 타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와의 약속'인데 어머니께서 평생 술과 담 고기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아내와의 약속'으로 바로 108배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무릎과 손가락 어깨 등 관절이 좋지 않은데다가 혈당마저 높았

게 연구하는 겁니다. 교육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희망이 없어집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그 희망을 길러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 -'무주상(無住相) 교육'을 강조하시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육도 무주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친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가르친다는 행위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의 궁극이 바로 무주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에서 만족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 말입니다. 불교의 중도 사상이 치우침이 없는 절대 가치를 말하듯이 교육자의 궁극도 집착하고 치우치는 것 보다는 그것을 벗어나는 지혜를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0의 삶'을 강조합니다. 숫자에서 '0'은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깊은 명상의 결과입니다. '0'은 어떤 수에 더하거나 빼도 그 숫자는 그대로

2월 28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이취임식장은 걸보게인 여느 대학의 총장 이취임식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 떠나는 제7대 박배훈 총장의 이임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할 행사에서 이임사가 생략된 이유, 떠나는 총장의 마음을 담은 노래 두 곡이 그 답이었다. 박배훈 총장이 직접 작사를 하고 축망받는 소장 작곡가 고영신 교수(교원대)가 작곡한 '연령'과 '유심무심'이란 노래가 이임식 시간에 젊은 성악가 양보람씨와 이동혁씨에 의해 불려졌다. 반주를 맡은 피아니스트 황경아씨는 박배훈 총장의 둘째 며느리. 두 곡의 노래에는 박배훈 총장의 인생관과 불교에 대한 사유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순간을 그렇게 '멋스럽게' 장식한 박배훈 총장. 총장이라는 짐을 벗고 나서 "일주일간 짐을 싣지 않겠다"는 말로 소회를 대신했다. 엘리트 교육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원대학교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를 한 자리에서 길러내는 국내 유일의 대학이다. 또 해마다 2000여 명이 교정연수를 받는 곳이다. 학부재학생 수는 2600명인데 대학원 재학생 수는 3800명이고 대부분이 현직교사다. 그 가운데 1000명의 대학원생은 교육과정을 나와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교육인재들. 박배훈 총장은 교육자 양성과 교육학 연구의 요람인 한국교원대학에서 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무주상 교육'을 강조했다. 이제 연구실로 돌아와 "내가 머물렀던 곳에 많은 향기를 남겼나?"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에게 받은 법명 '영명(永明)'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수학박사 박배훈 교수를 만났다.

### 금강선원 첫서리맞은 병잎차

본 차는 합천댐에서 가까운 천연 무공해의 지역 유장산(有藏山) 자락에 위치한 금강선원에서 스님께서 직접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다방식인 구중구포의 방법으로 아홉 번을 찌고 비비고 말리고, 마지막뒀을 공정까지 참선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차입니다. 스님께서는 수행하시면서 속이 냉하고 설사 등 오장육부가 안좋아 자연스럽게 불가전통 비법으로 병잎차를 만들어 드시며 병잎차의 효능을 직접 체험 하신던 중 그 맛에 탄복한 주위 분들의 권유로 맛도 좋고 봄에도 좋은 병잎차를 인연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지스님 및 수행하시는 스님들께서 봄이 냉하거나, 당뇨, 체질순환이 잘 안되는 경우 장복하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오장 육부가 좋아지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차는 몸이 안좋은 재가자 선불용으로 적합하며, 스님들께는 최고의 대종공양이 될 것입니다.

병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구중구포병잎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 가족 모두가 마실 수 있는 건강 약차입니다.

당뇨, 혈압, 중풍(뇌졸중), 동맥경화 등 예방

초심차(初心茶) : 50,000원  
 병잎을 찌서 말리고 또 찌고 말리고를 아홉번. 이것이 구중구포 바로 구중구포의 초심차입니다.  
 선원주변에 맑은 강이와 기온이 토양에서 자란 산나물부터 채취된 병잎을 재료로 하고 있어 무기질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병잎을 찌고 찌는 불은 청정한 맥반석 지하수를 다시 한번 지하유극수로 정화하여 사용하므로 차를 우려냈을 때 깊은 맛과 깨끗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심차(發心茶) : 70,000원 (첫서리맞은 병잎차)  
 11월초에 첫서리맞은 병잎을 채취하여 발심차(첫서리 맞은 병잎차)가 나오기까지 2달 가까이 걸립니다.  
 첫서리 맞은 병잎차는 겨울의 길목에서 청정한 산속에 들어가 첫서리 맞은 상산한 병나물잎을 따서 골고 씻어 찌고 그늘에 말리기를 9번을 하여 맛을 낸 것입니다. 특히 첫서리 맞은 병잎차는 강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을 떨어뜨려 혈당을 강하시키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강선원 www.ggzen.or.kr  
 구입문의 : (055)931-9590

### 고무신코 만행화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조각무명      세계절단화

최고의 신발

특무명

지압칼장

발명특허 제10-0806337호

가격 : 120,000원  
 규격 : 215-290mm  
 색상 : 회색, 자연색

가격 : 80,000원  
 규격 : 215-290mm  
 색상 : 회색, 검정

가격 : 10,000원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 : 상운각 063274-6639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산승복 062228-2870    서울 : 부상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경북(예천) 롯데백화점 054655-2525

인터넷 필름자리